

# 인도의 화폐개혁과 핀테크의 기회

김태은\*

## 1. 서론

지난 11월 8일 인도의 모디총리는 위조지폐를 없애고 지하경제를 뿌리 뽑는 것을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인도는 모디총리 취임 이래 7%대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왔으며<sup>1)</sup> 이번 조치는 인도 경제의 부정적 요소를 일거에 제거하고 현금 의존도가 높은 인도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성장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겠으나<sup>2)</sup>, 현재로는 단기적인 경제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인도는 국내총생산의 60%를 개인소비가 차지하고 이러한 소비의 90% 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기반의 경제이다. 500루피, 1,000루피권의 구권은 10일부터 쓰지 못하게 하고 신권(500루피, 2,000루피)은 구권을 은행에 입금 후 인출하도록 한 화폐개혁 조치에 따라 은행창구, ATM등에서 극심한 혼란과 사건이 일어났다. 화폐개혁 후 1달 동안 총 회수 예정금액이었던 14조 루피의 80%가 회수되었으나, 공급된 신권은 4조 루피에 불과하여 인도 화폐 유통의 86%가 급격히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041, lmy94@kisdi.re.kr

1) 김태은(2015)

2) 이러한 목적 외에도 정치자금, 불법자금의 차단, 테러자금의 발본색원, 부패자금 추적등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보고있음

화폐개혁은 인도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도중앙은행(RBI)은 이번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종전 7.6%에서 7.1%로 7일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 기간 인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7.9%에서 6.8%로 낮췄고 도이체방크는 7.5%에서 6.5%로, 앰비트 캐피털은 6.8%에서 3.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모디총리의 화폐개혁이라는 강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적인 맥락에서 인도경제에 도움이 될 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혼란의 의도한 혹은 의도치 않은 효과가 핀테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과 어려움이 모디노믹스라고 불리는 인도경제발전 전략의 하나인 금융포용<sup>3)</sup>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의 추진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도의 핀테크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과 스마트폰의 보급<sup>4)</sup>,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성장<sup>5)</sup>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되어왔으며 성장잠재력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현금기반의 인도경제의 특성과 기타 사회문화적인 장애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바 이다. 동 고에서는 인도의 핀테크 발전 및 현황을 살펴보고 화폐개혁이 핀테크부문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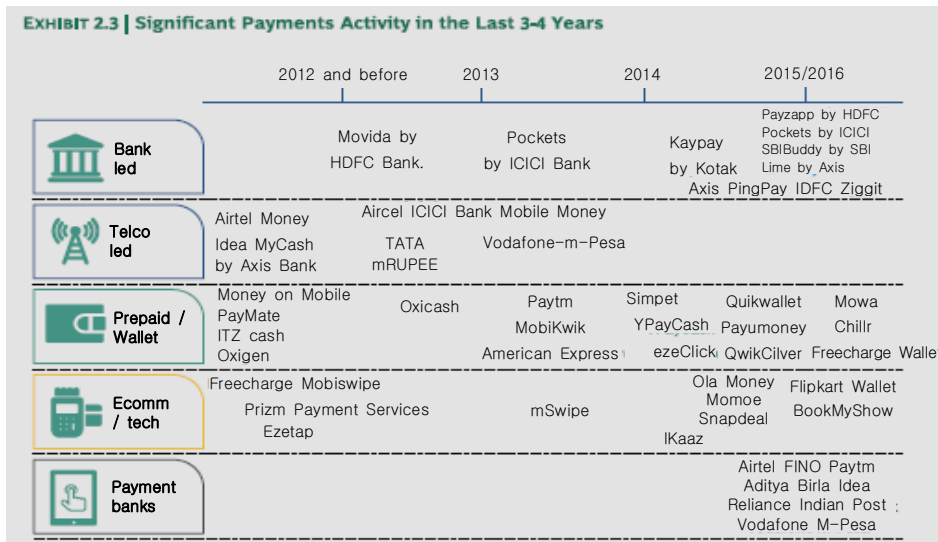
## 2. 인도의 핀테크 발전 및 현황

인도정부는 Cashless Bharat(캐시리스 인디아)를 위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 3) 인도인구의 반 이상이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디노믹스는 금융포용(Banking for all)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소액금융은행, 결제은행, 구좌보급 정책등을 통해 2020년 까지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된 인구를 10% 이하로 낮추고자 하며 핀테크의 보급과 금융포용은 상호 상승작용이 있을 것임
- 4) 인도는 세계2위의 인구 규모에 기반하여 모바일 통신기기 가입자 수 역시 10억이 넘는 세계 2위 수준을 보여줌. 이 중 2억 4,0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세계2위) 2020년에는 까지 스마트폰 사용자는 5억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BCG(2016)
- 5) 인도 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 2014년 69억 달러 규모였으며 2019년에는 4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김태은(2015)

있다. 우선 모바일간의 송금을 위한 디지털시스템인 UPI(Unified Payment interhace)를 시행하여 이용자들이 앱을 통하여 연결된 은행계좌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핀테크 사업자 역량과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오지에서의 금융포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에 11개의 결제은행(payment bank)을 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는 Bharat Bill Payment System((BBPS)하에서 운영될 Bharat Bill Payment Operating(BBPO)로서 활동한 33개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아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규제적 지원 하에 은행주도, 통신사업자 주도, 선불/e-wallet업체주도, e-commerce업체 주도, 지불은행주도의 다양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의 성장도 주목받고 있다.

[그림 1] 인도 핀테크의 전개(2012~2016)



Source: BCG experience and Research

모바일지갑(Mobile Wallet) 산업은 2019년까지 1억8,300만 달러에 다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바일지갑

의 대표적인 업체로 PayTM, Mobikwik, Freecharge, Citrus Pay가 있다. 디지털 방식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선불카드 방식의 Oxigen, Itz Cash, Suvidhaa 그리고 GI Tech가 있다.

〈표 1〉 인도의 주요 핀테크 업체

순위	회사명	특성
1	 Pay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yTM은 2014년 시작된 인도 최대 전자지갑 서비스.</li> <li>- Alibaba Group의 계열사인 Ant Financial Services Group이 PayTM의 모기업인 One97의 지분 40%소유</li> <li>- 현재 1억2,200만 명의 활성 이용자가 등록된 상태임.</li> </ul>
2	 Free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Snapdeal이 인수한 Freecharge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거래달 15%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li> <li>- 자체 플랫폼에 2,000만 명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li> </ul>
3	 MobiKw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biKwik은 약 3,000만 명의 전자지갑 사용자 보유</li> <li>- 아울러, MobiKwik은 라이트 버전의 모바일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으며, 이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사용자와 2G 사용자를 겨냥한 서비스임.</li> </ul>
4	 MyAir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rtel은 3억5,700만 명의 대규모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Airtel 관련 결제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one-stop 서비스로, 자체 AirtelApp을 출시</li> <li>- 모바일 데이터 충전, 청구서 납부 결제뿐 아니라, Night Cash Back, Data Share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li> </ul>
5	 Oxi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xygen은 2004년 설립되었으나, 소셜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에는 2014년 진입했음.</li> <li>- 선불, 후불, 모바일 머니, 충전, 공과금 납부, 티켓팅 등 다양한 거래 수단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li> </ul>

출처: 임성식(2016. 8. 26), www.kotra.or.kr

인도정부의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핀테크 육성책과 우호적인 환경의 변화로 NASSCOM이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도의 핀테크에 대한 투자는 2014년 2억 4,700만 달러에서 2015년 15억 달러로 증가되었으며 인도 핀테크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도 현재 12억 USD에서 2020년까지는 2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6)</sup> 또한 인도 핀테크의 거래금액이 2016년에는 330억 달러에 이르고 2020년에는 730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 인도 화폐개혁과 핀테크에의 영향

인도 핀테크 시장의 잠재력과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의존사회에서의 현금사용의 관행과 모바일 혹은 기타 전자적인 지불 및 결제 수단의 이용의 복잡성 및 거부감, 핀테크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등의 장애들로 인하여 캐시리스 사회로 전환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1월에 이루어진 화폐개혁으로 이용 가능한 “현금”이 절대 부족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핀테크가 매우 유효하고 독보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핀테크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화폐개혁 후 은행권 교환서비스 등을 제공한 PayTM의 경우 화폐개혁 발표 이후 신규 이용자 수가 1천% 급증하였으며 일일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700여만회, 12억 루피(약 206억 원)에 달했다. MobiKwik도 화폐개혁 발표 후 은행 거래량이 7천% 급증했다.

이러한 핀테크 이용의 급속한 증가는 고객저변의 확대, 거래규모의 증가, 수지의 개선, 이용범위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인도 핀테크 시장의 성장, 금융포용, 인도경제의 디지털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인도정부 역시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12월 8일 신용카드와 전자지갑 등을 이용해 주유비를 결제할 경우 0.75% 할인하는 등 11개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에는 온라인 열차표 구매시 최대 100만루피 상당의 사고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보험 등 보험상품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에도 8~10%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sup>7)</sup>

6) KPMG(2016)

7) 연합뉴스(12. 8)

인도의 핀테크 붐의 또다른 수혜자들은 인도의 핀테크 업체에 투자한 중국투자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PayTM과 Freecharge의 2대 핀테크 업체의 대주주이며 Mobikwik도 대만 및 홍콩자본이 투자하고 있다. 화폐개혁에 따른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 제1야당 간디 부총재가 비판했듯이 화폐개혁 조치로 농부와 서민은 고통받고 전자지갑 업체만 혜택받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아직 ICT 인프라나 서비스보급률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 농촌지역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의 소외가 심하며 금융포용도 취약한 인도에서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의 화폐개혁은 정부 주도적 정책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인도 핀테크에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제공하였으며 인도의 금융포용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태은 (2015), 인도 모디노믹스의 전개와 ICT: 디지털 인디아를 중심으로, 통신정책동향 제27권 1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합뉴스 (2016. 11. 27), “인도 화폐개혁에 中알리바바 웃는다…” 전자결제 급증 영향”.
- \_\_\_\_\_ (2016, 12. 9), 인도 ‘현금 없는 경제’ 박차…디지털 거래 활성화대책 발표.
- 임성식 (2016. 8. 26). “전자결제 활성화, ‘Digital India’로 거듭나는 인도”, kotra 뉴텔리무역관, www.kotra.or.kr.
- KPMG (2016). Fintech in India: A Global Growth story.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6). Digital Payments 2020: Making of a 500Billion ecosystem in India.